당일치기·웨딩 촬영도 인센티브 전남 지자체 관광객 유치에 사활

무안공항·크루즈 연계 총력
담양 예산 2000만원 확보
화순 버스 1대당 12만원

"관광객 많이 데려오세요"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단체 관광객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단체여행객 발길을 붙들기 위해 여행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인센티브와 관광객 유치 상품을 마련해 내놓고 있어서다.

◇수학여행단, 축제장으로 안내하면 보너스=무안군이 밝힌 '2018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당일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수학여행단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 게 특징이다.

당일 관광객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경우 30명, 외국인의 경우 20명 이상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방침을 내국인 20명, 외국인 5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외국인의 경우 소규모 단체관광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한 조치다.

여행사가 30명 이상 수학여행단을 데려와 무안연꽃축제, 황토갯벌축제장으로 안내하면 1인당 2000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수학여행단을 미래의 관광 고객이라는 시각으로 접근, 인센티브를 늘렸다는 게 무안군 설명이다. 내국인 1박 이상 숙박 지원금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늘렸고 무안공항과 크루즈 활성화를 염두에 둔 인센티브도 내놓았다. 5명 이상의 외국인을 무안공항과 국제크루즈를 통해 무안으로 데려오면 1인당 5000원의 보너스를 추가로 지원한다. 무안군은 이를 위해 예산 3000만원을 확보했다.

◇예산 늘리고 웨딩 촬영도 지원=영광군은 올해 여행사에게 지급할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로 지난해(1500만원)보다 500만원 늘린 20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인센티브로 유치한 관광객은 3227명으로 1614만원의 지원금을 썼다.

담양군도 지난해(1500만원)보다 늘어난 2000만원을 관광객 인센티브 예산으로 확보했다.

담양군은 인문학투어(내·외국인, 수학여행단 20명 이상), 전세버스 관광객(외국인 15명 이상) 외에 외국인 여행객의 웨딩 촬영지로 담양을 안내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외국인 커플이 2박 3일 머무르며 웨딩촬영을 하게되면 30만원, 3박 4일 일정이면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외 화순군은 수학여행단의 경우 30명 이상, 외국인은 20인 이상의 관광객을 데려와 관광지 1곳과 음식점에 들러 식사를 하도록 안내하면 당일치기 여행에도 버스 1대당 하루 12만(수학여행단)~20만원(외국인)을 지원한다. 구례는 내국인 관광객 25명, 외국인 관광객 25명, 수학여행단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신안군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갯벌·천일염·슬로시티를 소재로 한 상품 ▲성지순례 ▲자전거·트래킹, 세일요트 상품 ▲권역별 섬여행 등 7개 테마에 맞춘 1박 이상 여행상품을 내놓는 여행사를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모를 진행중이다.

앞서 여수시는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기 위해 당일 관광객 인센티브를 없앴다. 또 주말과 성수기(3~5월, 7~8월) 인센티브를 축소하고 주중과 비수기(6월, 9~2월) 지원액을 늘려 관광객을 분산시키는데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전라도 대표관광지 회산백련지, 무안황토갯벌랜드, 남도소리울림터를 여행사에 적극 홍보, 단체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무안=임동현기자 jdh@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신안 임자도 '힐링·휴양의 섬'으로 거듭난다

관광자원화 계획 용역 보고회
2020년까지 관광기반 구축

지난해 임자도에서 열린 튤립축제 전경.

임자도가 오는 2020년까지 다양한 힐링 휴양 시설을 갖춘 관광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25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3일 '임자도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 용역 보고회'를 갖고 임자도 개발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용역보고회는 오는 2020년까지 60억원을 들여 ▲전장포 새우젓토굴(북부권) ▲대광해변·튤립공원(서부권) ▲용난굴·진리항(남부권) 등의 관광자원을 활용, '힐링 휴양의 아일랜드, 모래의 섬 임자도'라는 비전을 달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국 젓새우의 70%를 생산하는 전장포 지역은 새우젓 발효를 위해 만들어진 토굴을 활용, 새우젓체험장, 직거래판매장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광해변은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꾸밀 계획이다. 우선, 산림레포츠 체험장과 해송숲 탐방로 등을 조성하고 야간 조명시설 등을 갖추는 한편, 12㎞에 달하는 백사장을 활용한 샌드아트축제, 새우젓갈축제, 튤립축제 등 사계절 즐길거리를 마련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어머리 해변, 용난굴, 진리항 일대에는 기존 갯벌(카약·공기부양정) 체험에다, 용난굴 탐방시설, 오토캠핑장과 짚라인을 설치, 체험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영광 불갑산 구수재에 '호랑이 폭포' 조성

영광군 불갑산 구수재에 '호랑이 폭포'〈사진〉가 조성됐다.

25일 영광군에 따르면 불갑사 구수재까지 용수를 공급하는 공사가 마무리된데 따라 용수배출구에 호랑이 폭포〈사진〉를 조성했다.

입에서 시원한 물을 뿜어내는 흰 호랑이 형상 폭포로, 영광군은 호랑이가 물을 자주 마셨던 곳으로 전해지는 곳에 폭포를 설치했다.

불갑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체가 남아있던 한국산 호랑이가 잡혔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영광군은 지난 2009년에도 청동으로 호랑이상 2점을 제작, 불갑산에 전시한 바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백호는 예로부터 길조의 상징으로 내려오던 동물"이라며 "탐방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조형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무안터미널~무안공항 직통버스 운행

내달부터 하루 한차례

다음달부터 무안터미널을 출발, 무안공항을 오가는 직통 버스가 운행한다.

25일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교통은 오는 2월 1일부터 무안버스터미널~무안국제공항 간 직통버스를 하루 한 차례 운행한다. 버스는 무안~제주 노선(오전 6시40분)에 맞춰 매일 새벽 5시 50분 무안버스터미널에서 출발, 오전 6시5분께 공항에 도착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요금은 1인 기준 1700원이다.

무안군은 연간 1500만원을 예산을 들여 해당 버스회사측에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무안터미널~공항~운남을 오가는 버스는 그대로 하루 4~5차례 운행된다. /무안=임동현기자 jdh@

함평군 농한기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4개마을 경로당 어르신 대상…4월까지 12주간 운영

함평군이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관팔팔 관절팔팔'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4개 마을 경로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까지 12주에 걸쳐 기공체조, 건강체조, 노인놀이치료 등 맞춤형 운동 서비스와 한의약 양생법 등 한방 교육을 병행한다.

식생활 관리를 위한 한의약 식이체험, 치매예방을 위한 생활공예 등도 진행된다.

함평군 보건소 관계자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영광지역 초·중·고교생
다문화 뮤지컬 예술동아리
'락 뮤' 1박 2일 동계 캠프

영광지역 다문화 뮤지컬 예술동아리 학생들의 겨울 캠프가 열렸다.

영광교육지원청은 최근 영광 학생의 집에서 지역 초·중·고교생으로 구성된 다문화 뮤지컬 예술동아리 '락(樂)뮤' 동계 캠프〈사진〉를 진행했다.

'락뮤'는 지난해 '찾아가는 뮤지컬 투어'를 기획, 실시하는 한편, 지역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와 연계, 장성·목포, 영광, 전북 임실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 활동을 펼쳤다.

올해는 '꿈과 끼를 펼쳐라'라는 주제로 예정된 공연을 앞두고 동계 뮤지컬 집중캠프를 지난 2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추진했다.

영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뮤지컬 활동을 통해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들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재로 성장해달라"고 말했다./영광=김민석기자 mskim@

투자가치 좋습니다. 010-3605-5000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제2종 주거지역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상수도 급수 공사 완료
- 매매-4200만원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팟섬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 장기투자 최적**
- 매매 – 14억 (타 부동산 교환가) **분할매매가**

거문도,토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전망좋음**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락희 호텔 /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음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조정가)